

IPA를 활용한 대학의 고효과 프로그램 학생 요구 분석: 서울 소재 H 대학 사례

장명희¹ · 조성범² · 정소미³

¹한성대학교 교수, ²세명대학교 조교수, ³동양대학교 조교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에서 운영하는 고효과 프로그램의 중요도 및 참여도 간 학생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방법 이를 위해 서울 소재 H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1,326명의 고효과 프로그램별 중요도와 참여도의 인식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K-NSSE(학부교육실태조사)에서 제시한 고효과 프로그램 목록을 활용하였다. 분석에는 학생들이 인식한 고효과프로그램의 중요도와 참여도에 대해서 t-검증과 IPA가 차례로 수행되었다.

결과 먼저, t-검증을 통해 고효과 프로그램별 중요도와 참여도 간 차이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중요한 것에 비해 참여 정도가 낮다는 학생 인식이 모든 고효과 프로그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IPA를 통해, 고효과 프로그램의 학생 요구도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1) '지속 유지'해야 하는 프로그램으로는 '멘토링, 튜터링을 통한 도움 받기', 2) '인식 개선'이 요구되는 프로그램으로는 '학습 공동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신입생 세미나', '멘토, 튜터, 서포터즈, 학생회 활동', 3) 장기적 관점에서 '점진 개선'이 필요한 프로그램으로는 '교수와의 연구 프로젝트 참여', '지역사회 프로젝트', 마지막으로 4) 현 시점에서 '집중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프로그램으로는 '산업현장 참여 프로젝트', '6개월 이상 국제 교류 프로그램', '교학년 대상 통합적 학습 활동'이 포함되었다. 연구대상의 집단별 특성에 따른 고효과 프로그램의 학생 요구 정도는 전공계열, 성별, 학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결론 이상의 결과를 통해 대학교육에서 고효과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고효과 프로그램, 학생 요구 분석, 중요도-실행도 분석, 사례 연구

논문접수: 2021년 12월 5일, 논문심사: 2022년 1월 8일, 게재승인: 2022년 2월 7일

Corresponding to 조성범, csb-0720@naver.com

1. 서론

Strange와 Banning(2015)은 지난 50년 동안 미국 대학에서 일어난 가장 주목할 변화로 '학생성공(student success)'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은 것이라고 했다. 이에 맞추어 학자들의 관심도 학생의 학습, 성장, 발전 그리고 이를 위한 대학의 지원으로 옮겨갔다. Strange와 Banning은 이를 두고 가히 혁명적인 변화라고 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대학의 수월성(excellence)을 진단하는 기준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Astin과 Antonio(2012)는 대학이 보유한 자원(resources)이나 사회적 평판(reputation)에만 초점을 두어서는 진정한 명문대학(excellent university) 여부를 판가름하기

어렵다고 역설하였다. 이들은 대학도 명실상부한 교육기관인 만큼 학생이 자신의 잠재된 능력을 얼마나 계발했느냐(talent development)가 대학의 책무성과 수월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대학 평가란 학생의 학습과 성공을 증진시키기 위해 대학이 교육적 역할을 얼마나 제대로 다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한다(Kinzie, 2012).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있었다. 2011년부터 시행된 '대학자율역량 강화지원 사업(ACE+사업)'을 계기로 학부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대학들은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초점을 둔 학사제도과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힘을 쏟기 시작했다(배상훈, 한송이, 전수빈, 2019). 또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의 주요 지표도 대학이 얼마나 잘 가르치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 학생 중심, 교육 중심의 대학 문화와 행정체제가 확산되고 있다(교육부, 2019).

이러한 맥락에서 많은 대학이 ‘고효과 프로그램(high impact practices)’에 주목하고 있다. 고효과 프로그램이란 학생의 인지적 성장뿐 아니라 정서적 발달을 촉진시키는데 효과적인 교육적 활동을 의미한다(Kuh, 2008). 고효과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단순하게 참여하는 것 이상으로 시간 투자를 요구하고, 이들의 능동적 학습 및 협동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미국대학협의회(AAC&U)는 2008년 대학생의 여러 가지 형태의 학습성과 향상에 효과적인 구체적인 교수·학습 활동을 도출하여 이를 고효과 프로그램으로 명명하였다(Kuh, 2008).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고효과(high impact)’로 명명한 이유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미국 대학생 학습 참여 조사(NSSE) 결과에 따르면, 대학 연구자들은 학생의 학습 참여(student engagement)를 유도하고 학업 지속(retention)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던 교육 프로그램들이 실제로도 학생들에게 상당한 교육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그러한 활동들이 주류 대학생뿐 아니라 대학 진학과 교육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취약계층 학생들의 성과 향상에도 효과적이었다. 셋째, 고효과 프로그램들은 교과 교육과정 내에서의 협소한 학습 성과뿐만 아니라, 대학생의 인지적, 사회·정의적 측면 등 다양한 학습 성과에도 효과를 주었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대학협의회(AAC&U)는 고효과 프로그램으로 신입생 세미나, 학습 공동체 활동, 글쓰

기 집중 강좌, 학부생 연구, 지역사회 연계 프로젝트 등 10가지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¹⁾. 이후, 미국의 많은 대학 연구자들은 고효과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교육 활동을 구체화하고 고도화하는 연구를 진행해 왔다(Kuh, 2008). 미국 대학생의 학습 경험 양상과 교육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는 NSSE(National Survey of Student Engagement) 연구팀이 대표적이다. NSSE는 미국 학부생들의 학습 실태 조사 설문에서 미국대학협의회가 제안한 10개의 고효과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자체 연구를 통해 1) 현장학습 활동, 2) 리더십 프로그램, 3) 학습공동체 활동, 4) 국제 교육 프로그램, 5) 학부생 연구 참여, 6) 통합적 학습 경험, 7) 서비스 러닝 등 7개 활동으로 고효과 프로그램의 참여 실태를 조사하였다(NSSE, 2013). 국내에서는 배상훈 외(2019)가 우리나라 대학 맥락에 맞게 10개의 고효과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배상훈과 동료 연구자들은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학습 참여 양상을 파악하고자 2011년부터 국내 4년제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K-NSSE(Korean-National Survey of Student Engagement)를 실시하였다. 당초 K-NSSE는 NSSE나 미국대학협의회와 비교했을 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학생 간 멘토링 및 튜터링 경험,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기숙사 프로그램 등 국내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추가 및 통합하여 12개의 고효과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2019년에는 이전보다 신뢰성 있는 고효과 프로그램 선별을 위해 변수연(2019)의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최종 10개의 고효과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²⁾.

고효과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학생의 학습

1) 미국대학협의회(AAC&U)에서는 고효과 프로그램으로 1) 신입생 세미나 및 경험(신입생들이 소집단으로 교수와 만나 비판적 탐구, 글쓰기, 정보 문해, 협동 학습 등 학생들의 지적, 실용적 역량을 개발하는 활동), 2) 공통 지적 경험(핵심 교육과정으로 여러 교과 및 비교과 활동에 폭넓은 주제를 결합시킨 교육), 3) 학습 공동체(학생 간에 강좌를 초월한 상호작용을 장려하고, 공통의 주제나 질문을 가지고 수업을 함께 듣고 학습하게 하는 공동체 활동), 4) 글쓰기 집중 강좌(강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주제를 다양한 독자를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형식으로 글쓰기 과제를 부여하는 교육), 5) 협동 과제/프로젝트(수업 내 스터디 그룹 또는 팀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 및 연구 과제, 서로 다른 배경과 삶의 경험을 가진 타인과 협업하는 경험), 6) 학부생 연구(학부생에게 실증적 관찰, 최신 분석 기술을 활용해 중요한 문제에 대한 탐구 기회를 부여), 7) 다양성/글로벌 학습(인종, 민족, 성별 불평등 문제, 또는 인권, 자유, 권력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또는 해외 학습을 통해 탐구하는 교육과정), 8) 서비스러닝 및 지역사회 연계학습(경험 학습(experiential learning)으로 지역사회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이 배운 지식을 활용하고 그 결과를 성찰하는 학문), 9) 인턴십(경험 학습으로 작업 현장에서 전문가의 감독과 지도하에 배운 지식을 적용하여 지식과 경험을 확장하는 경험), 10) 캡스톤 강좌 및 프로젝트(학생들이 전학년 동안 배운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연구 논문, 퍼포먼스, 포트폴리오, 졸업전시 등 종결적 성격의 성과물 제작) 등 10개 프로그램을 제시하였음(Kuh, 2008)

2) 변수연(2019)에 따르면 대학교육 효과에 공통적으로 정적 효과를 보이는 고효과 프로그램은 신입생 세미나, 능동적·협동적 학습, 학습공동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효과 프로그램은 학생에게 단순한 교과 수강 이상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게끔 하여 학생의 학업 몰입을 높이고, 학습 성과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Kuh, 2008; Zhao & Kuh, 2004). 또한, 학습 주제에 대한 반성적, 통합적 사고를 유도하여 심층적 접근(deep approaches to learning)을 이끌어내고, 결과적으로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력과 같은 학생의 인지적 역량을 향상시킨다(Nelson Laird et al., 2014; NSSE, 2007). 그리고 의미 있는 학습 주제를 통해 교수 및 교수와 상호작용하는 능동적 학습(active learning)을 촉진하여 학생의 사회·정서적 학습 기술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Kuh, 2008). 고효과 프로그램은 캠퍼스 안팎에서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과 학습 환경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교실에서 배운 지식을 보다 넓은 맥락에서 적용하고 통합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Keeling, 2006; Kuh, 2008). 또한, Cruce, Wolniak, Seifert, & Pascarella(2006)에 따르면, 교수-학생 상호작용, 학습 공동체 관련 프로그램 등과 같은 고효과 프로그램은 대학 입학생들의 인지적 발달과 학습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도 유의미한 정적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홍지인(2017)이 K-NSSE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 공동체 활동, 학부생 연구, 지역연계 교육 프로그램 등과 관련된 고효과 프로그램들이 학생들의 인지적 성장과 사회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밝혔다. 변수연(2019)은 신입생 세미나, 능동적·협동적 학습, 학습 공동체 활동, 서비스 러닝, 캡스톤 교과, 교수-학생 상호작용 등 6개의 고효과 프로그램이 현실 세계 문제해결 능력, 비판적·분석적 사고 능력, 통계

정보 활용 및 분석 능력과 같은 지식적 측면의 학습 성과뿐 아니라, 가치관 및 윤리관 형성,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 이해, 협동 능력, 교양 있는 시민의식 등 정의적 영역의 성과에서도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나 코로나 19 사태 등 대학 환경이 혼란스러워짐에 따라 대학에 대한 소속감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고효과 프로그램 참여는 학생들의 긍정적인 대학 인식과 대학 몰입(institutional commitment)에 유의미함을 시사하였다(배상훈, 황수정, 2021; 송영명, 유신복, 2020).

결국, 고효과 프로그램은 공급자 중심의 일방향적으로 운영되던 학부 교육을 학생 중심의 다채로운 교육으로 채신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Kuh, Kinzie, Schuh, & Whitt, 2005; Strange & Banning, 2015). 대학이 ‘학문의 전당’ 혹은 ‘진리의 상아탑’으로 인식되면서, 연구 기능을 중심에 둔 학사 및 인사 제도가 운영돼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010년도 소위 ‘잘 가르치는 대학’을 지향하는 ACE 대학이 등장하면서부터 많은 대학은 대학 교육과 행정의 중심에 학생을 두고, 이들을 지원하는 교육 서비스를 아끼지 않았으며(구성우, 김병주, 2018), 그 중심에는 고효과 프로그램이 존재했다. 따라서 고효과 프로그램은 대학이 학생의 성장과 발달 과정에 대해, 학생이 대학에서 어떤 일상을 보내는지에 대해, 학생이 수업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그 결과 어떤 능력들이 계발되는지에 대해, 마지막으로 학생이 대학의 수업과 행정지원, 교육지원 서비스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갖도록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다. 학생의 생활과 인식, 역량 등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대학의 교수와 직원들의 일상적인 업무 내용이나 업무 처리 방식에서의

제, 서비스 러닝, 캡스톤 교과, 교수-학생 상호작용 등 여섯 개였음. 반면, 해외 교환학생은 효과적 사고나 리더십 등에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글쓰기 집중 강좌나 학부생 연구 참여 등은 효과적 사고 및 학습의 통합 등에만 유의한 영향을 끼쳤음. 이를 바탕으로 배상훈 외(2019)는 취·창업 관련 프로그램과 기숙사 거주 학생 대상 프로그램을 표현이 불명확하고 다른 프로그램들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삭제하여, 다음과 같이 10개의 고효과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음; 1) 산업 현장 참여 프로그램(인턴십, 산학협력, 실습, 임상경험 등), 2) 친구들과 함께 하는 학습 공동체 활동(팀 프로젝트, 공모전, 기숙사 활동 등), 3) 친구들과 함께 하는 학습 공동체 활동(팀 프로젝트, 공모전, 기숙사 활동 등), 4) 교수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 5) 고학년 대상 통합적 학습(캡스톤 과목, 포트폴리오 제작, 졸업 작품전 등), 6) 수업 일환으로 하는 지역사회 프로젝트(지역사회봉사활동, 서비스러닝 등), 7)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새내기 배움터, 예비대학 등), 8) 학점이 부여되는 신입생 세미나(대학생활, 학습 안내 등), 9) 다른 학생을 위한 멘토나 튜터, 학교 서포터즈, 학생회 활동, 10) 학습 멘토링, 선배 또는 전문가 튜터링 등을 통해 내가 도움을 받음

변화를 가져오고, 궁극적으로 학생을 가장 중요한 구성원으로 보고 자신의 임무는 이 학생들을 돕고 지원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새로운 조직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다(배상훈 외, 2019b; Pascarella et al., 2004). 따라서 학생 중심의 대학 문화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대학 내 고효과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선제적이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 및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학생 교육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고효과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대학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학 맥락에 부합한 고효과 프로그램을 탐색하거나 특정 고효과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제는 대학 차원에서 고효과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학부교육 체질 개선 전략을 수립하는 사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한편,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은 언제나 한정된 교육자원의 분배 문제를 수반한다. 즉, 재정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는 교육과정을 개편하거나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증 자료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대학이 다양한 형태의 교과목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부서 간 유사 프로그램 중복 운영, 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되지 못한 프로그램 개발 등 비효율적 교육 투자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교육 정책 및 운영 관점에서 대학이 고효과 프로그램을 토대로 학부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교육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실증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고효과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학부 교육과정을 개편함에 있어 효과적인 학교 운영 및 학부 교육을 위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에도, 대학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교육 프로그램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고효과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교육 체계의 질적 개선을 추진 중인 서울 소재 H 대학교를 연구 사례로 활용하였다. H 대학에서 개설하는 고효과 프로그램 중에

서 어떤 프로그램이 중요하고, 개선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도출하기 위해 H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고효과 프로그램의 영향력이 여러 가지의 배경 변인들에 따라 조건적인 성질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변수연, 2019), 분석 과정에서는 학생의 특성 및 상황적 맥락을 고려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학생의 전공 계열, 학년별, 성별에 따라 고효과 프로그램의 요구 정도를 살펴보았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H 대학 학생들이 인식한 고효과 프로그램의 중요도와 참여도 간 차이와 교육 요구도는 어떠한가?

둘째, H 대학 학생들이 인식한 고효과 프로그램의 중요도와 참여도에 따른 교육요구도는 학생들의 성별, 전공계열,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사례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의 인식을 토대로 고효과 프로그램(High-Impact Practices: 이하 ‘HIP’)의 중요도와 참여도를 확인한 후, 어떠한 프로그램이 중요한지 혹은 미흡한지를 파악하여 대학의 학부교육을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서울에 소재한 4년제 H 대학교를 연구 사례로 삼았다. H 대학은 학생 수요 맞춤형 교육체제를 선진화하고자 전공교육에서는 트랙제 기반의 융합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양교육에서는 핵심역량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체계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융합 역량을 잘 갖추고 학교의 교육목표인 핵심역량을 잘 함양할 수 있도록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과 팀 프로젝트 학습 교과목을 확대 개설하였다. 또한, 역량 기반 교과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따라 진로를 선택하고 계발할 수 있도록 비교과 교육과정을 고도화하였다. 특히, H 대학은 학생들에게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실적

을 졸업요건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매년 개편하거나 개설하고 있다. 비교과 프로그램의 세부 유형에는 특강 및 워크숍, 창의융합 현장체험 활동, 소모임 및 멘토링 활동, 봉사 활동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 공모전 및 각종 대회, 어학 점수 획득 및 각종 자격증 취득, 상담 및 검사 참여 등이 있다. 이렇듯 H 대학은 교과 및 비교과 교육과정 모두에서 학생들이 고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는 고교과 프로그램이 교과와 비교과 간 경계를 구분 짓지 않고 특정 전공 교과목이나

교양 교과목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Kuh, 2008)에서 고교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전방위적 노력을 보인 H 대학이 본 연구의 사례로 적절함을 시사한다. 즉, H 대학의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고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성과 참여도에 대해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상적이고 전형적인 사례(ideal-typical case)’라고 볼 수 있다(Kinzie et al., 2007).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고자 우리나라 맥락에 맞게 고교과 프로그램을 재분류한 배상훈 외(2019)의 유형에 따라 H 대학의 주요 교육 프로그램 및 교과목을 제시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H 대학의 주요 고교과 프로그램

구분	주요 프로그램	내용
산업 현장 프로그램	IPP 장기현장실습	산업체 전일제 현장교육훈련을 한 학기 동안 수행함으로써 대학교 학업 학기를 대체 인정하는 한국형 장기현장 실습제도
	Core OJT, Warm-up OJT	전공트랙별 실무 경험을 위한 학생 주도형 단기 현장실습
	ICT인턴십 프로젝트	기업에서 제안한 ICT 분야 직무 중심의 프로젝트에 학생이 참여하여 인턴십을 수행하고, 이를 학점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문제해결형 인재양성 프로그램
학습 공동체 활동	High Success Project	디자인씽킹을 통해 지역사회 관련 다양한 영역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여 팀 프로젝트 활동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팀별 결과물을 산출하는 프로그램
	학술 소모임	전공 역량 및 공동체 역량 개발 지원 프로그램
국제 교류 프로그램	교환학생 프로그램	상대교에서 요구하는 어학자격을 갖춘 학생이 두 학기 동안 전공 혹은 교양과정을 이수하면서 상대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교에서 인정받는 프로그램
	글로벌 동행 프로젝트	교내 내국인 재학생과 외국인 재학생이 팀을 이루어 한국의 지역 탐방으로 통해 상호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프로그램
	Disney College Program	Florida State University(FSU)의 방문학생 신분으로 Walt Disney World내에서 이루어지는 유급 인턴십 프로그램
교수 연구 프로젝트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URP)	대학생의 자기주도적 연구 활동을 통해 진로 준비 기회 제공 및 잠재 연구자의 창의·융합 및 과학기술 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고학년 학습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산업체(또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과제를 대상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과 종합적인 문제해결을 통해 창의성과 실무능력을 배양하도록 지원하는 정규교과목
	졸업전시회	대학 4년 동안의 학습 경험을 바탕으로 졸업 결과물을 전시 및 발표하는 프로그램
지역 사회 프로젝트	서비스러닝 교과목	학생들의 교육과 반성적 성찰을 통해 지역사회 서비스 통합을 목적에 둔 교과목
	사회봉사단	대학 동문 및 지역사회 전문직 멘토단과의 사회인 멘토링을 통한 지역사회 봉사활동
	낙산학습나눔 프로젝트	성북 도서관 및 유관기관을 이용하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학습지도를 실시하여 교육실습 및 사회봉사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새내기새로배움터	대학생활 안내, 안전 및 폭력 예방 교육, 동아리 활동 안내, 선배와의 만남 등으로 구성된 예비입학생 대상 소속감 증진 프로그램
	예비대학	수시합격생 예비대학 대상 학과 안내 및 학교 교수님과의 만남
신입생 세미나	대학생활 길라잡이 교과목	신입생이 대학현황, 학사관리, 학생지원 등 대학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생활 적응을 높이도록 하는데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과목
멘토 및 튜터 활동	학생 홍보대사	학교행사지원, 대학 공식채널 콘텐츠 제작, 고교입시홍보, 홍보모델, 지역사회봉사 등을 활동하는 학교 홍보대사
	한성 앰버서더	H대학 한국어과정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학부생이 1:1로 결연을 맺어,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학습을 돕고 한국생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한성 튜터링(튜터)	특정 과목에 우수한 실력을 갖춘 학생(튜터)과 그 과목 학습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학생(튜티)이 한 팀을 이루어 매주 함께 공부하는 학생주도 협동학습 프로그램
학습 멘토링, 튜터링 참가	한성 튜터링(튜티)	특정 과목에 우수한 실력을 갖춘 학생(튜터)과 그 과목 학습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학생(튜티)이 한 팀을 이루어 매주 함께 공부하는 학생주도 협동학습 프로그램
	학습능력향상튜터링(튜티)	학습활동 및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튜티)이 1:1로 튜터링을 진행하여 튜터의 중도 이탈을 막고 학습촉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모집단은 H 대학의 학부생이다. 본 연구는 H 대학교 학부생 전체를 대상으로 고효과 프로그램 참여 관련 설문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2019년 10월 16일부터 동년 동월 31일까지 약 2주간 온라인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 윤리를 확보하기 위해 학생들이 연구의 목적과 활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한 후에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설문에 응답한 학생들을 제외하여 최종 1,326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의 전공계열별 참여 학생은 인문예술 278명(22.2%), 사회과학 292명(23.2%), 디자인 269명(21.5%), 공학 414명(33.0%)이었다. 학년별로는 1학년

396명(31.6%), 2학년 463명(37.0%), 3학년 280명(22.3%), 4학년 114명(9.3%)이었으며, 성별로는 남학생 476명(38.0%), 여학생 777명(62.0%)이었다(<표 2> 참조). 이는 2019학년도 기준으로 해당 영역에 대한 모집단의 비유과 유사함으로 대표성 있는 표집이었음을 의미한다.

3. 설문 도구

고효과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도와 참여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K-NSSE(학부교육실태조사)에서 제시하는 고효과 프로그램의 중요도 및 참여도를 중심으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K-NSSE는 미국 대학에서 학습경험 성과측정을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NSSE(National Survey of Student Engagement)를 한국형 학습참여 진단도구로 배상훈, 강민수, 홍지인(2015)이 타당화 하였다. 성균관대학교 교육과미래연구소가 매년 약 100개의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K-NSSE는 학업도전, 교우와 학습, 교수와 경험, 대학환경의 4개 영역, 10개 요인, 총 4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9학년도 K-NSSE(배상훈 외, 2019a)의 틀에 따라 설문지를 구성하여 H 대학이 자체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1) 해당 프로그램이나 활동이 자신의 인지적, 정서적 성장 및 발달에 얼마나 중요한지와 2) 해당 프로그램에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고효과 프로그램 유형별 중요도 10문

<표 2> 연구 참여자의 특성

	구분	학생 수(명)	비율(%)
전공계열	인문예술	278	22.2
	사회과학	292	23.3
	디자인	269	21.5
	공학	414	33.0
학년	1학년	396	31.6
	2학년	463	37.0
	3학년	280	22.3
	4학년	114	9.1
성별	남학생	476	38.0
	여학생	777	62.0
	합계	1,253	100.0

<표 3> 고효과 프로그램별 내용 및 문항 신뢰도 결과

구분	내용	신뢰도계수 (Cronbach's a)	
		중요도	참여도
HIP1	산업 현장 참여 프로그램(인턴십, 산학협력, 실습, 임상경험 등)	.862	.854
HIP2	친구들과 함께 하는 학습 공동체 활동(팀 프로젝트, 공모전, 기숙사 활동 등)		
HIP3	6개월 이상 국제교류 프로그램(교환학생, 해외대학 공동학위 제도 등)		
HIP4	교수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		
HIP5	고학년 대상 통합적 학습(캡스톤 과목, 포트폴리오 제작, 졸업 작품전 등)		
HIP6	수업 일환으로 하는 지역사회 프로젝트(지역사회봉사활동, 서비스러닝 등)		
HIP7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새내기 배움터, 예비대학 등)		
HIP8	학점이 부여되는 신입생 세미나(대학생활, 학습 안내 등)		
HIP9	다른 학생을 위한 멘토나 튜터, 학교 서포터즈, 학생회 활동		
HIP10	학습 멘토링, 선배 또는 전문가 튜터링 등을 통해 내가 도움을 받음		

항, 참여도 10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인식을 바탕으로 10개의 고효과 프로그램별 중요도와 실행도 문항에 대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10개의 고효과 프로그램들이 서로 내적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중요도가 .862, 참여도가 .854로 나타났다. 고효과 프로그램별 내용과 전체 문항 신뢰도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었다.

4. 자료 분석

H 대학 학생들의 고효과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도와 참여도 인식을 살펴보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H 대학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고효과 프로그램의 중요도와 학생들이 H 대학에서 제공하고 있고 고효과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도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문항별로 리커트 5점 척도로 점수화된 수치를 활용하여 고효과 프로그램별로 중요도와 참여도의 평균 및 표준 편차를 산출하였고, 평균값에 대한 차이 검증(t-test)을 활용하여 프로그램별 중요도와 참여도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둘째, H 대학이 고효과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개발 및 개편되어야 할 프로그램 혹은 활동을 찾고자 중요도-실행도 분석(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이하 'IPA')을 실시하였다. Martilla와 James(1977)가 제시한 IPA 분석은 각 요소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참여도)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는 분야를 도출하는데 유용한 분석이다(유정아, 2015). 즉, 이 분석은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내용이나 사항을 도출하고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대학에서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IPA 분석은 중요도 평균값과 참여도 평균값을 기준으로 4개의 좌표평면을 제시한다. 제1사분면은 중요도와 참여도가 모두 높은 영역으로 해당 영역에 포함된 프로그램은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 요구된다. 제2사분면은 중요도는 낮지만, 참여도가 높은 영역으로 해당 영역의 프로그램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축소가 요구된다. 그러나 본 연구 맥락에서 제2사분면은 고효과 프로그램을 단순히 축소하기 보다는 해당 프로그램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 개선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제3사분면은 중요도와 참여도가 모두 낮은 영역으로 해당 영역의 프로그램은 장기적 관점에서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제4사분면은 중요도는 높은 반면, 참여도가 낮은 영역으로 해당 영역에 포함된 프로그램은 개선을 위한 단기적 집중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이상의 내용을 좌표평면(X축: 중요도, Y축: 참여도)으로 표현하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인식 개선 참여도 ↑	지속 유지
중요도 ↓ 장기적 점진 개선 참여도 ↓	중요도 ↑ 단기적 집중 개선

[그림 1] IPA 매트릭스

III. 연구결과

1. 학생 전체 대상 요구분석 결과

가. 중요도-참여도 평균차이 분석 결과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고효과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도와 참여도 간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생들은 모든 고효과 프로그램에 대하여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에 비해 참여 정도는 낮다고 인식하였다(<표 4> 참조). 중요도 측면에서 살펴보면,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고효과 프로그램은 ‘산업 현장 참여 프로그램(HIP1)’으로 나타났다(3.84점). 이어서 ‘6개월 이상 국제교류 프로그램(HIP3, 3.77점)’, ‘고학년 대상 통합적 학습(HIP5, 3.75점)’, ‘학습 멘토링 혹은 전문가 튜터링 참여(HIP10, 3.72점)’의 프로그램의 중요도가 비교적 높게 인식되었다. 학생 참여 인식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비교적 참여를 잘 하고 있다고 인식되는 프로그램으로는 ‘학점이 부여되는 신입생 세미나(HIP8, 3.35점)’, ‘학습 멘토링 혹은 전문가 튜터링 참여(HIP10, 3.35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HIP7, 3.33점)’ 등이 있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참여 정도가 보통 수준(3점) 보다 낮은 고효과 프로그램들이 있었다. ‘산업현장 참여 프로그램(HIP1, 2.93점)’, ‘국제 교류 프로그램(HIP3, 2.85점)’, ‘지역사회 프로젝트

(HIP6, 2.82점)’, ‘교수와의 연구 프로젝트 참여(HIP4, 2.67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중요도와 참여도 간 평균 차이 분석 결과, ‘산업현장 참여 프로그램(HIP1)’과 ‘국제교류 프로그램(HIP3)’이 0.91점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교수와의 연구 프로젝트 참여(HIP4)’도 비교적 높은 수준의 평균 차이를 보였다(0.76점).

나. 요구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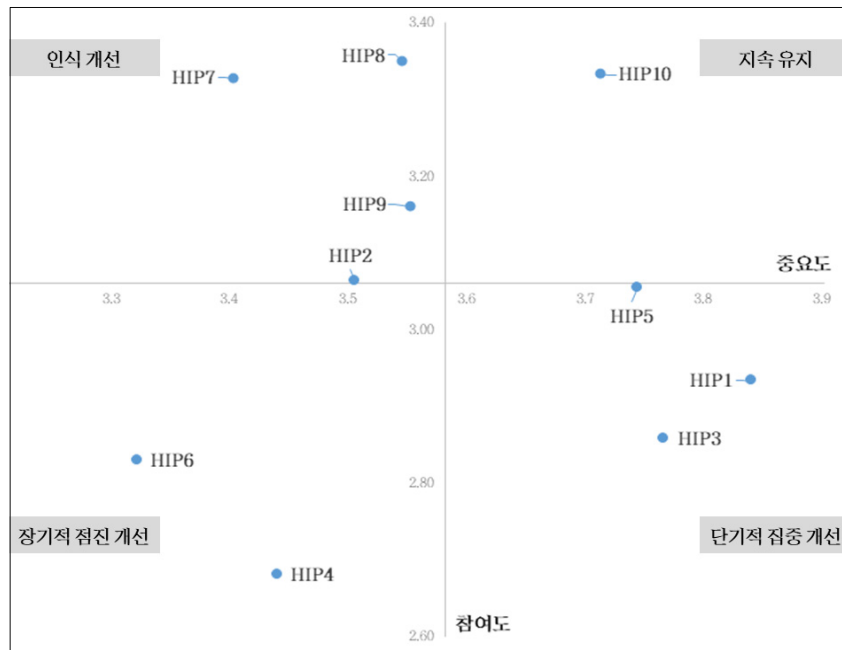
중요도-참여도 분석(IPA)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고효과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 요구의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10개의 고효과 프로그램의 중요도 평균과 참여도 평균을 각각 X축(3.59점)과 Y축(3.06점)으로 하여 4개의 영역이 구성되었다.

분석결과, 제1사분면은 중요도와 참여도가 모두 높은 영역으로서, ‘지속 유지’해야 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HIP10(학습 멘토링, 선배 또는 전문가 튜터링 등을 통해 내가 도움을 받음)이 여기에 해당된다. 제2사분면은 중요도는 낮고 참여도는 높은 영역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이 학생의 성장과 발전에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 개선이 우선시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인식 개선’이 요구되는 고효과 프로그램으로는 ‘HIP2(학습 공동체)’, ‘HIP7(신입생 오리엔테이션)’, HIP8(신입생 세미나), ‘HIP9(멘토, 튜터, 서포터즈, 학생회 활동)’이 포

<표 4> 고효과 프로그램의 중요도-참여도 평균차이 분석 결과

구분	중요도(A)		참여도(B)		평균 차이(A-B)	t 값
	M	SD	M	SD		
HIP1	3.84	.87	2.93	1.10	.91	26.06***
HIP2	3.51	.87	3.06	1.06	.45	16.12***
HIP3	3.77	.86	2.85	1.15	.91	27.28***
HIP4	3.43	.88	2.67	1.09	.76	23.89***
HIP5	3.75	.90	3.05	1.15	.69	21.27***
HIP6	3.32	.87	2.82	1.03	.50	17.97***
HIP7	3.41	1.04	3.33	1.14	.08	2.99**
HIP8	3.54	.91	3.35	1.02	.19	7.91***
HIP9	3.57	.89	3.17	1.10	.39	13.78***
HIP10	3.72	.88	3.35	1.06	.37	14.42***
소계	3.59	.90	3.06	1.09	.53	-

p<.01, *p<.001



[그림 2] 고효과 프로그램의 IPA 매트릭스 분석 결과

함되었다. 제3사분면은 중요도와 참여도가 모두 낮은 영역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프로그램 개선이 요구’되는 프로그램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영역에는 ‘HIP4(교수와 연구 프로젝트 참여)’와 ‘HIP6(지역사회 프로젝트)’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제4사분면은 중요도는 높으나 참여도가 저조한 영역으로 현재 시점에서 ‘집중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뜻한다. 여기에는 ‘HIP1(산업현장 참여 프로젝트)’, ‘HIP3(6개월 이상 국제 교류 프로그램)’, ‘HIP5(교환년 대상 통합적 학습 활동)’이 위치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2. 학생 집단 특성에 따른 요구분석 결과

가. 성별에 따른 고효과 프로그램 요구분석 결과

연구대상의 성별에 따라 고효과 프로그램의 중요도와 참여도 간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먼저 남학생의 경우,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고효과 프로그램은 ‘산업 현장 참여 프로그램(남학생의 HIP1 중요도: 3.74점)’이었으며,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인식한 프로그램은 ‘학습 멘토링, 선배 또는 전문가 튜터링 등을 통해 내가 도움을 받음(남학생의 HIP10 참여도: 3.34점)’으로 나타났다. 중요도와 참여도의 인식 차이가 가장 큰 프로그램은 교환학생, 해

<표 5> IPA 매트릭스 결과에 따른 고효과 프로그램 요구분석 결과 정리표

구분	내용	결과
제1사분면	지속 유지	HIP10: 학습 멘토링, 선배 또는 전문가 튜터링 등을 통해 내가 도움을 받음
제2사분면	인식 개선	HIP2: 친구들과 함께 하는 학습 공동체 활동(팀 프로젝트, 공모전, 기숙사 활동 등)
		HIP7: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새내기 배움터, 예비대학 등)
		HIP8: 학점이 부여되는 신입생 세미나(대학생활, 학습 안내 등)
		HIP9: 다른 학생을 위한 멘토나 튜터, 학교 서포터즈, 학생회 활동
제3사분면	장기적 점진 개선	HIP4: 교수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
		HIP6: 수업 일환으로 하는 지역사회 프로젝트(지역사회봉사활동, 서비스러닝 등)
제4사분면	단기적 집중 개선	HIP1: 산업 현장 참여 프로그램(인턴십, 산학협력, 실습, 임상경험 등)
		HIP3: 6개월 이상 국제교류 프로그램(교환학생, 해외대학 공동학위 제도 등)
		HIP5: 교환년 대상 통합적 학습(캡스톤 과목, 포트폴리오제작, 졸업 작품전 등)

<표 6> 성별에 따른 고효과 프로그램의 중요도-참여도 평균차이 분석 결과

구분	성별	중요도(A)		참여도(B)		평균 차이 (A-B)	t 값
		M	SD	M	SD		
HIP1	남학생	3.74	.88	2.95	1.08	.79	14.32***
	여학생	3.90	.85	2.91	1.12	.99	21.92***
HIP2	남학생	3.50	.89	3.07	1.06	.44	10.33***
	여학생	3.51	.87	3.06	1.06	.45	12.43***
HIP3	남학생	3.56	.88	2.74	1.12	.82	15.49***
	여학생	3.89	.82	2.92	1.16	.97	22.54***
HIP4	남학생	3.46	.91	2.82	1.13	.64	11.79***
	여학생	3.42	.87	2.59	1.05	.83	21.41***
HIP5	남학생	3.60	.92	3.00	1.15	.60	11.97***
	여학생	3.84	.88	3.09	1.15	.75	17.64***
HIP6	남학생	3.28	.91	2.87	1.04	.41	9.18***
	여학생	3.35	.84	2.79	1.03	.56	15.66***
HIP7	남학생	3.48	1.07	3.32	1.14	.16	3.70***
	여학생	3.37	1.02	3.34	1.13	.03	.97
HIP8	남학생	3.55	.94	3.31	1.05	.24	5.98***
	여학생	3.54	.90	3.37	1.01	.17	5.35***
HIP9	남학생	3.55	.93	3.16	1.07	.39	8.56***
	여학생	3.57	.87	3.18	1.11	.39	10.80***
HIP10	남학생	3.65	.90	3.34	1.03	.31	7.53***
	여학생	3.76	.86	3.35	1.08	.41	12.40***
소계	남학생	3.54	.92	3.06	1.09	.48	-
	여학생	3.62	.88	3.06	1.09	.56	-

*p<.05, **p<.01, ***p<.001

외대학 공동학위 제도 등 ‘6개월 이상 국제교류 프로그램(남학생의 HIP3 중요도-참여도 평균 차이: 0.82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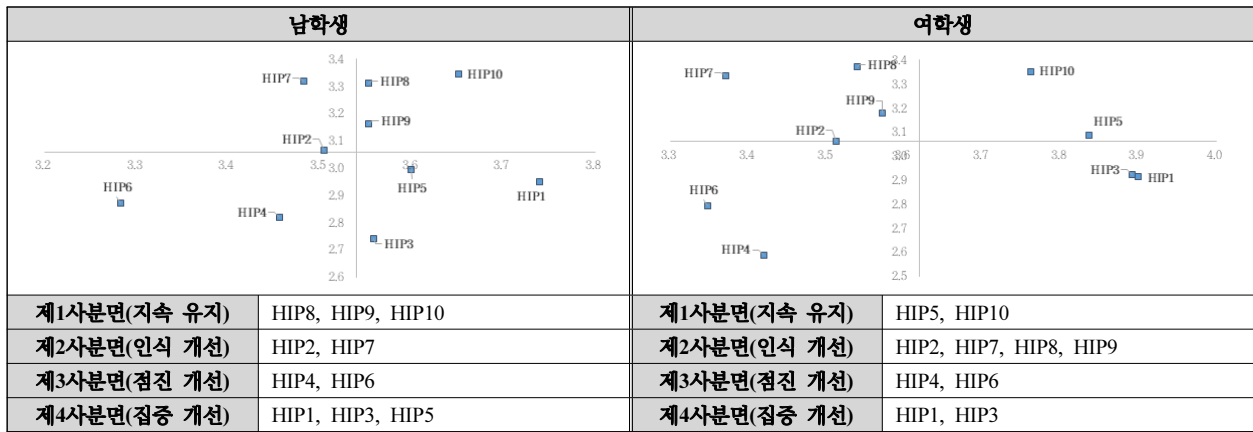
다음으로, 여학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고효과 프로그램은 남학생과 마찬가지로 ‘산업 현장 참여 프로그램(여학생의 HIP1 중요도: 3.90점)’이었다. 여학생의 인식에 따라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고효과 프로그램은 대학생활, 학습 안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학점이 부여되는 신입생 세미나(여학생의 HIP8 참여도: 3.37점)’로 나타났으며, 고효과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도와 참여도의 차이는 인턴십, 산학협력, 실습, 임상경험 등을 예시로 들 수 있는 ‘산업 현장 참여 프로그램(학생의 HIP1 중요도-참여도 평균 차이: 0.99점)’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성별을 막론하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HIP7)’을 제외한 모든 고효과 프

그램에 대하여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에 비해 참여 정도는 낮다고 인식하였다. HIP7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의 참여도에 대한 인식은 비슷했으나(남: 3.32점, 여: 3.34점), 남학생이 인식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중요성이 여학생의 그것보다 높았다(남: 3.48점, 여: 3.37점). 또한, 여학생의 경우, HIP7에 대해 중요성과 참여 정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거의 없었다.

고효과 프로그램에 대한 성별 학생 요구의 우선순위를 중요도-참여도 분석(IPA)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표현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10개의 고효과 프로그램의 중요도 평균과 참여도 평균을 각각 X축(남학생, 3.54점, 여학생 3.62점)과 Y축(남학생, 3.06점, 여학생 3.06점)으로 하여 4개의 영역이 구성되었다.

남학생이 인식하는 고효과 프로그램별 중요도 및 참여도에 대한 IPA 매트릭스 분석 결과, 제1사분면에는



[그림 3] 성별 고효과 프로그램의 IPA 매트릭스 분석 결과

‘HIP8(신입생 세미나)’, ‘HIP9(멘토나 튜터, 서포터즈, 학생회 활동)’, ‘HIP10(학습 멘토링, 전문가 튜터링)’, 제2사분면에는 ‘HIP2(학습 공동체 활동)’, ‘HIP7(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제3사분면에는 ‘HIP4(교수의 연구 프로젝트)’, ‘HIP6(지역사회 프로젝트)’, 제4사분면에는 ‘HIP1(산업현장 참여 프로그램)’, ‘HIP3(국제교류 프로그램)’, ‘HIP5(고학년 대상 통합적 학습)’가 포함되었다.

반면, 여학생이 인식하는 고효과 프로그램별 중요도 및 참여도에 대한 IPA 매트릭스 분석 결과, 제1사분면에는 ‘HIP5(고학년 대상 통합적 학습)’, ‘HIP10(학습 멘토링, 전문가 튜터링)’, 제2사분면에는 ‘HIP2(학습 공동체 활동)’, ‘HIP7(신입생 오리엔테이션)’, ‘HIP8(신입생 세미나)’, ‘HIP9(멘토나 튜터, 서포터즈, 학생회 활동)’, 제3사분면에는 ‘HIP4(교수의 연구 프로젝트)’, ‘HIP6(지역사회 프로젝트)’, 제4사분면에는 ‘HIP1(산업현장 참여 프로그램)’, ‘HIP3(국제교류 프로그램)’이 포함되었다.

나. 전공계열에 따른 고효과 프로그램 중요도-참여도 분석

연구대상의 전공계열에 따라 고효과 프로그램의 중요도와 참여도 간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전공을 인문예술 계열로 둔 학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고효과 프로그램은 ‘산업 현장 참여 프로그램(인문예술 계열 학생의 HIP1 중요도: 3.69점)’이

었으며, 가장 많이 참여한다고 인식하는 고효과 프로그램은 ‘학점이 부여되는 신입생 세미나(인문예술 계열 학생의 HIP8 참여도: 3.37점)’로 나타났다. 고효과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도와 참여도의 차이는 ‘6개월 이상 국제교류 프로그램(인문예술 계열 학생의 HIP3 중요도-참여도 평균 차이: 0.93점)’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과학 계열 학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고효과 프로그램도 인문예술 계열 학생과 마찬가지로 ‘산업현장 참여 프로그램(사회과학 계열 학생의 HIP1 중요도: 3.99점)’이었다. 사회과학 계열 학생의 참여 정도 인식이 가장 높은 고효과 프로그램은 ‘학점이 부여되는 신입생 세미나(사회과학 계열 학생의 HIP8 참여도: 3.37점)’로 나타났다. 고효과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도와 참여도의 차이는 ‘산업현장 참여 프로그램(사회과학 계열 학생의 HIP1 중요도-참여도 평균 차이: 0.93점)’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디자인 전공 학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고효과 프로그램은 포트폴리오 제작, 졸업 작품전과 같은 ‘고학년 대상 통합적 학습(디자인 계열 학생의 HIP5 중요도: 3.91점)’이었고,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고효과 프로그램은 ‘학점이 부여되는 신입생 세미나(디자인 계열 학생의 HIP8 참여도: 3.35점)’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효과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도와 참여도의 차이는 ‘산업현장 참여 프로그램(디자인 계열 학생의 HIP1 중요도-참여도 평균 차이: 0.87점)’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전공계열에 따른 고효과 프로그램의 중요도-참여도 평균차이 분석 결과

구분	전공계열	중요도(A)		참여도(B)		평균 차이(A-B)	t 값
		M	SD	M	SD		
HIP1	인문예술	3.69	.843	2.85	1.057	.85	11.80***
	사회과학	3.99	.817	3.01	1.143	.98	12.41***
	디자인	3.83	.869	2.97	1.073	.87	11.54***
	공학	3.84	.896	2.90	1.127	.94	16.00***
HIP2	인문예술	3.36	.857	2.87	1.053	.49	8.61***
	사회과학	3.52	.870	3.10	1.028	.42	7.00***
	디자인	3.50	.827	3.06	1.030	.44	7.05***
	공학	3.61	.904	3.17	1.088	.44	9.47***
HIP3	인문예술	3.76	.869	2.82	1.128	.93	13.19***
	사회과학	3.85	.877	3.00	1.200	.85	11.97***
	디자인	3.86	.811	3.01	1.118	.85	11.82***
	공학	3.65	.856	2.67	1.113	.98	17.10***
HIP4	인문예술	3.29	.873	2.59	1.007	.70	10.72***
	사회과학	3.44	.952	2.73	1.157	.71	11.34***
	디자인	3.29	.795	2.53	.967	.75	11.53***
	공학	3.62	.858	2.78	1.151	.84	14.02***
HIP5	인문예술	3.59	.881	2.89	1.099	.70	10.73***
	사회과학	3.55	.956	2.77	1.132	.78	11.07***
	디자인	3.91	.878	3.37	1.085	.53	7.59***
	공학	3.88	.856	3.15	1.168	.74	12.90***
HIP6	인문예술	3.30	.827	2.85	1.014	.45	7.97***
	사회과학	3.35	.976	2.94	1.096	.42	7.33***
	디자인	3.30	.793	2.77	.980	.53	8.85***
	공학	3.34	.869	2.76	1.036	.58	11.40***
HIP7	인문예술	3.35	.984	3.31	1.113	.03	.62
	사회과학	3.41	1.097	3.33	1.184	.09	1.38
	디자인	3.36	.985	3.29	1.120	.08	1.38
	공학	3.49	1.072	3.37	1.130	.12	2.36*
HIP8	인문예술	3.50	.865	3.37	1.025	.14	2.56*
	사회과학	3.58	.974	3.41	1.028	.18	3.49**
	디자인	3.51	.862	3.35	.951	.16	3.51*
	공학	3.57	.938	3.30	1.069	.26	5.86***
HIP9	인문예술	3.51	.844	3.18	1.055	.33	5.59***
	사회과학	3.54	.947	3.18	1.138	.36	5.65***
	디자인	3.51	.830	2.94	1.031	.57	9.20***
	공학	3.66	.922	3.31	1.113	.35	7.31***
HIP10	인문예술	3.62	.883	3.26	1.087	.36	6.78***
	사회과학	3.67	.892	3.29	1.067	.38	6.81***
	디자인	3.65	.849	3.19	1.007	.46	8.25***
	공학	3.87	.876	3.56	1.053	.31	7.17***
소계	인문예술	3.50	.87	3.00	1.06	.50	-
	사회과학	3.59	.94	3.07	1.12	.52	-
	디자인	3.57	.85	3.05	1.04	.52	-
	공학	3.65	.90	3.10	1.10	.56	-

* $p<.05$, ** $p<.01$, *** $p<.001$

마지막으로 공학 계열 학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고효과 프로그램도 디자인 계열 학생과 동일하게 ‘고학년 대상 통합적 학습(공학 계열 학생의

HIP5 중요도: 3.88점)’이었다.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고효과 프로그램은 ‘학습 멘토링, 선배 또는 전문가 튜터링(공학 계열 학생의 HIP10 참여도: 3.88점)’으로

나타났으며, 고효과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도와 참여도의 차이는 ‘6개월 이상 국제교류 프로그램(공학 계열 학생의 HIP3 중요도-참여도 평균 차이: 0.98점)’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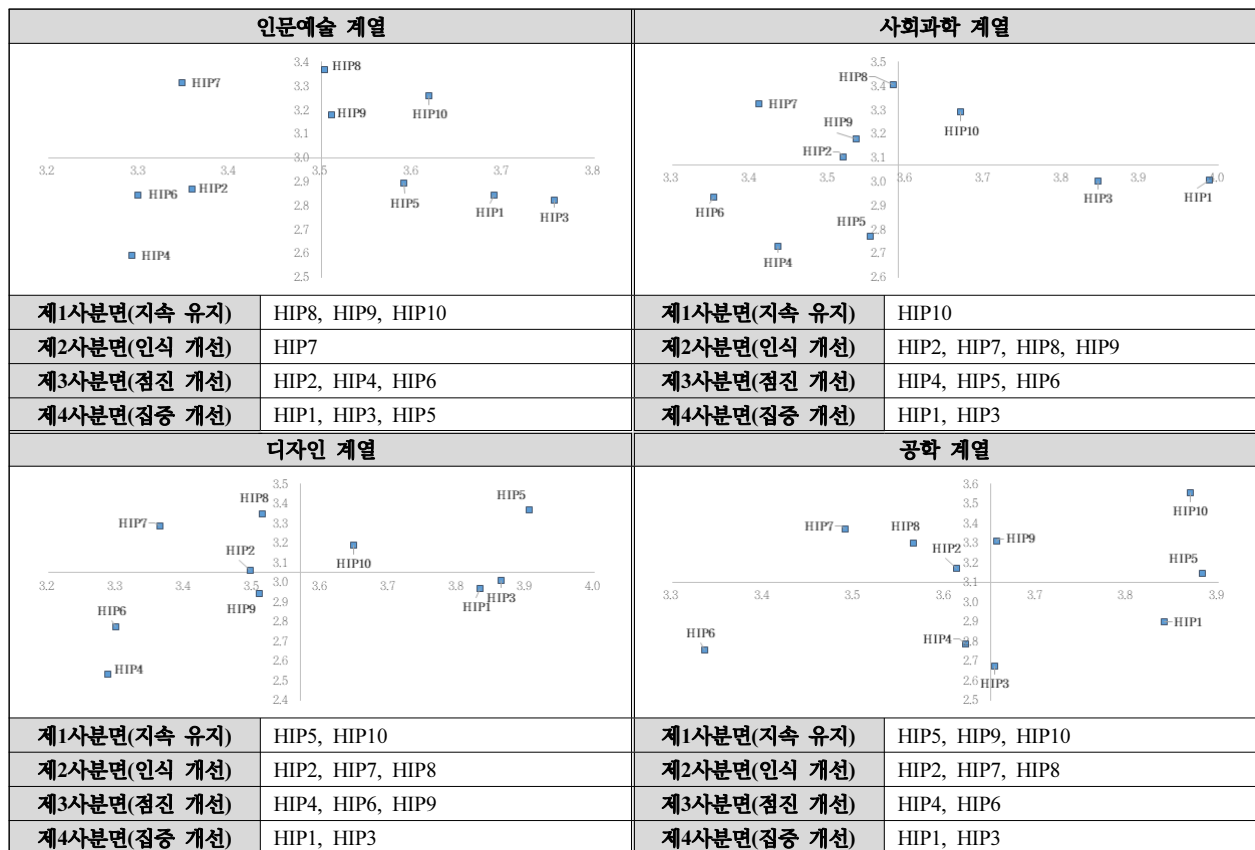
고효과 프로그램에 대한 전공계열별 학생 요구의 우선순위를 중요도-참여도 분석(IPA)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표현한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10개의 고효과 프로그램의 중요도 평균과 참여도 평균을 각각 X축(인문예술: 3.50점, 사회과학: 3.59점, 디자인: 3.57점, 공학: 3.65점)과 Y축(인문예술: 3.00점, 사회과학: 3.07점, 디자인: 3.05점, 공학: 3.10점)으로 하여 4개의 영역이 구성되었다.

인문예술 계열 학생의 IPA 매트릭스 분포를 살펴보면, 제1사분면의 ‘지속 유지’ 영역에는 ‘HIP8(신입생 세미나)’, ‘HIP9(멘토나 튜터, 서포터즈, 학생회 활동)’, ‘HIP10(학습 멘토링, 전문가 튜터링)’, 제2사분면의 ‘인식 개선’ 영역에는 ‘HIP7(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제3사분면의 ‘점진 개선’ 영역에는 ‘HIP2(학습 공동체 활동)’, 제4사분면의 ‘집중 개선’ 영역에는 ‘HIP1(산업현장 참여 프로그램)’, ‘HIP3(국제교류 프로그램)’이 포함되었다.

의 ‘점진적 개선 필요’ 영역에는 ‘HIP2(학습 공동체 활동)’, ‘HIP4(교수의 연구 프로젝트)’, ‘HIP6(지역사회 프로젝트)’, 마지막으로 제4사분면의 ‘전략적 집중 개선’ 영역에는 ‘HIP1(산업현장 참여 프로그램)’, ‘HIP3(국제교류 프로그램)’, ‘HIP5(고학년 대상 통합적 학습)’가 포함되었다.

사회과학 계열 학생의 요구도를 살펴보면, 제1사분면 영역에는 ‘HIP10(학습 멘토링, 전문가 튜터링)’, 제2사분면 영역에는 ‘HIP2(학습 공동체 활동)’, ‘HIP7(신입생 오리엔테이션)’, ‘HIP8(신입생 세미나)’, ‘HIP9(멘토나 튜터, 서포터즈, 학생회 활동)’, 제3사분면 영역에는 ‘HIP4(교수의 연구 프로젝트)’, ‘HIP5(고학년 대상 통합적 학습)’, ‘HIP6(지역사회 프로젝트)’, 마지막으로 제4사분면 영역에는 ‘HIP1(산업현장 참여 프로그램)’, ‘HIP3(국제교류 프로그램)’이 포함되었다.

디자인 계열 학생의 요구도를 살펴보면, 제1사분면 영역에는 ‘HIP5(고학년 대상 통합적 학습)’, ‘HIP10(학습



[그림 4] 전공계열별 고효과 프로그램의 IPA 매트릭스 분석 결과

멘토링, 전문가 튜터링)', 제2사분면 영역에는 'HIP2(학습 공동체 활동)', 'HIP7(신입생 오리엔테이션)', 'HIP8(신입생 세미나)', 'HIP9(멘토나 튜터, 서포터즈, 학생회 활동)', 제3사분면 영역에는 'HIP4(교수의 연구 프로젝트)', 'HIP6(지역사회 프로젝트)', 'HIP9(멘토나 튜터, 서포터즈, 학생회 활동)', 마지막으로 제4사분면 영역에는 'HIP1(산업현장 참여 프로그램)', 'HIP3(국제교류 프로그램)'이 포함되었다.

공학 계열 학생의 요구도를 살펴보면, 제1사분면 영역에는 'HIP5(고학년 대상 통합적 학습)', 'HIP9(멘토나 튜터, 서포터즈, 학생회 활동)', 'HIP10(학습 멘토링, 전문가 튜터링)', 제2사분면 영역에는 'HIP2(학습 공동체 활동)', 'HIP7(신입생 오리엔테이션)', 'HIP8(신입생 세미나)', 제3사분면 영역에는 'HIP4(교수의 연구 프로젝트)', 'HIP6(지역사회 프로젝트)', 마지막으로 제4사분면 영역에는 'HIP1(산업현장 참여 프로그램)', 'HIP3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포함되었다.

다. 학년에 따른 고효과 프로그램 중요도-참여도 분석

연구대상의 학년에 따라 고효과 프로그램의 중요도와 참여도 간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먼저 1, 2학년에 해당하는 저학년의 경우,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고효과 프로그램은 '산업현장 참여 프로그램(저학년의 HIP1 중요도: 3.84점)'이었으며,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인식한 프로그램은 '학습 멘토링, 선배 또는 전문가 튜터링 등을 통해 내가 도움을 받음(저학년의 HIP10 참여도: 3.34점)'으로 나타났다. 중요도와 참여도의 인식 차이가 가장 큰 프로그램은 '산업현장 참여 프로그램(저학년의 HIP1 중요도-참여도 평균 차이: 0.99점)'이었다.

다음으로, 3, 4학년으로 구분되는 고학년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고효과 프로그램은 저학년과

<표 8> 학년에 따른 고효과 프로그램의 중요도-참여도 평균차이 분석 결과

구분	성별	중요도(A)		참여도(B)		평균 차이(A-B)	t 값
		M	SD	M	SD		
HIP1	저학년	3.84	.88	2.85	1.09	.99	17.77***
	고학년	3.90	.90	3.05	1.14	.86	13.10***
HIP2	저학년	3.49	.88	3.02	1.09	.47	9.95***
	고학년	3.52	.93	3.06	1.05	.46	9.91***
HIP3	저학년	3.74	.88	2.78	1.18	.96	16.94***
	고학년	3.75	.85	2.88	1.13	.87	14.84***
HIP4	저학년	3.44	.90	2.64	1.10	.79	14.87***
	고학년	3.40	.92	2.73	1.14	.67	11.80***
HIP5	저학년	3.70	.88	2.97	1.12	.73	13.60***
	고학년	3.84	.95	3.24	1.20	.59	10.54***
HIP6	저학년	3.31	.89	2.82	1.03	.50	10.68***
	고학년	3.30	.87	2.79	1.04	.51	10.23***
HIP7	저학년	3.43	1.07	3.23	1.14	.20	4.27***
	고학년	3.36	1.03	3.27	1.14	.08	1.62
HIP8	저학년	3.50	.92	3.25	1.05	.26	5.97***
	고학년	3.53	.93	3.37	1.02	.16	3.62***
HIP9	저학년	3.58	.89	3.15	1.10	.43	9.21***
	고학년	3.49	.88	3.12	1.08	.37	6.90***
HIP10	저학년	3.71	.88	3.34	1.06	.37	8.52***
	고학년	3.74	.87	3.35	1.05	.39	8.15***
소계	저학년	3.57	.91	3.00	1.10	.57	-
	고학년	3.58	.91	3.09	1.10	.50	-

*p<.05, **p<.01, ***p<.001

마찬가지로 ‘산업현장 참여 프로그램(고학년의 HIP1 중요도: 3.90점)’이었다. 고학년의 인식에 따라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고효과 프로그램은 ‘학점이 부여되는 신입생 세미나(여학생의 HIP8 참여도: 3.37점)’로 나타났으며, 고효과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도와 참여도의 차이는 ‘산업현장 참여 프로그램(고학년의 HIP1 중요도-참여도 평균 차이: 0.86점)’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고효과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 요구의 우선순위를 중요도-참여도 분석(IPA)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표현한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10개의 고효과 프로그램의 중요도 평균과 참여도 평균을 각각 X축(저학년: 3.57점, 고학년: 3.58점)과 Y축(저학년: 3.00점, 고학년: 3.09점)으로 하여 4개의 영역이 구성되었다.

1, 2학년 학생의 IPA 매트릭스 분포를 살펴보면, 제1사분면의 ‘지속 유지’ 영역에는 ‘HIP9(멘토나 튜터, 서포터즈, 학생회 활동)’, ‘HIP10(학습 멘토링, 전문가 튜터링)’, 제2사분면의 ‘인식 개선’ 영역에는 ‘HIP2(학습 공동체 활동)’, ‘HIP7(신입생 오리엔테이션)’, ‘HIP8(신입생 세미나)’, 제3사분면의 ‘점진적 개선 필요’ 영역에는 ‘HIP4(교수의 연구 프로젝트)’, ‘HIP6(지역사회 프로젝트)’, 마지막으로 제4사분면의 ‘전략적 집중 개선’ 영역에는 ‘HIP1(산업현장 참여 프로그램)’, ‘HIP3(국제교류 프로그램)’, ‘HIP5(고학년 대상 통합적 학습)’가 포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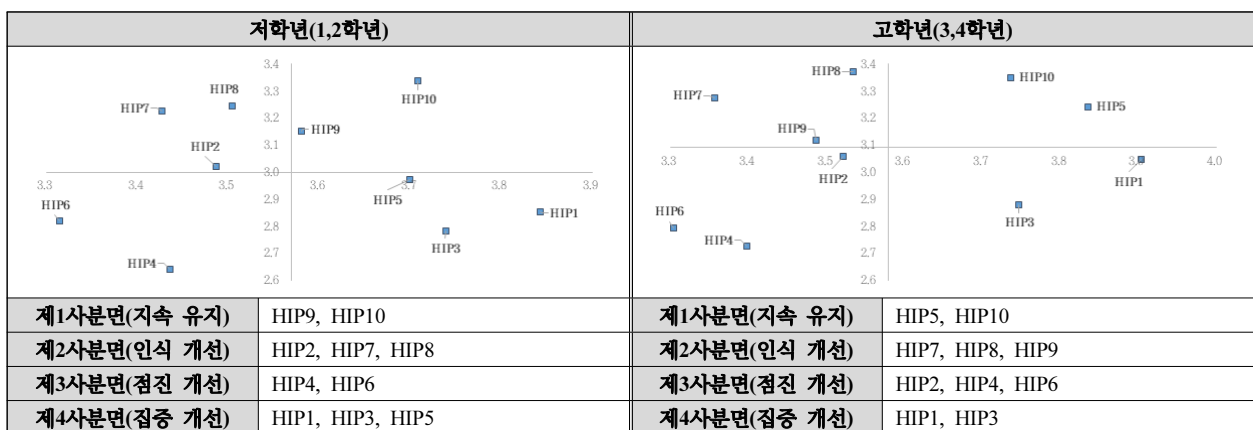
3, 4학년 학생의 요구도를 살펴보면, 제1사분면 영역

에는 ‘HIP5(고학년 대상 통합적 학습)’, ‘HIP10(학습 멘토링, 전문가 튜터링)’, 제2사분면 영역에는 ‘HIP7(신입생 오리엔테이션)’, ‘HIP8(신입생 세미나)’, ‘HIP9(멘토나 튜터, 서포터즈, 학생회 활동)’, 제3사분면 영역에는 ‘HIP2(학습 공동체 활동)’, ‘HIP4(교수의 연구 프로젝트)’, ‘HIP6(지역사회 프로젝트)’, 마지막으로 제4사분면 영역에는 ‘HIP1(산업현장 참여 프로그램)’, ‘HIP3(국제교류 프로그램)’이 포함되었다.

IV. 논의 및 결론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학령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시장의 다변화 등으로 인해 대학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교육임을 성찰하며, 혁신의 중심에 학생을 두기 시작했다. 이에 최근 많은 대학은 교육 중심 대학을 표방하고 학생 중심 대학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학교 행정 및 제도에서 활발한 개혁의 움직임을 감행하고 있다. 고효과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교과 및 비교과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하는 시도가 이에 해당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효과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대학교육과정을 재구조화하기 위한 실천적 전략을 탐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교육 체계의 질적 개선을 위한 전략으로 고효과 프로그램을 활용한 서울 소재 H 대학을 연구 사례로 삼았다. H 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고효



[그림 5] 학년별 고효과 프로그램의 IPA 매트릭스 분석 결과

과 프로그램의 중요성과 참여도를 묻는 설문을 실시하였고, 설문 응답자 1,326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 내용에는 K-NSSE(학부교육실태조사)에서 제시된 고효과 프로그램이 활용되었다. 또한, IPA 기법을 적용하여 H 대학에서 개설하는 고효과 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중요하고, 개선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의 집단적 특성에 따라 효과적인 개선 전략을 탐색하고자 학생의 성별, 전공 계열, 학년에 따라 고효과 프로그램의 요구 정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H 대학 학생들의 인식을 토대로 고효과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 요구 상황을 IPA 매트릭스별로 살펴보았다. 제1사분면은 중요도와 참여도가 모두 높은 영역으로서, 지속 유지해야 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학습 멘토링, 전문가 튜터링을 통한 도움 얻기’가 포함되었다. 제2사분면은 중요도는 낮고 참여도는 높은 영역으로서, 학생의 성장과 발전에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 개선이 급선무인 프로그램이 여기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 공동체 활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신입생 세미나’, ‘멘토, 튜터, 서포터즈, 학생회 활동’이 포함되었다. 제3사분면은 중요도와 참여도가 모두 낮은 영역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프로그램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영역에는 ‘교수와의 연구 프로젝트 참여’, ‘지역사회 프로젝트’가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제4사분면은 중요도는 높

으나 참여도가 저조한 영역으로 현재 시점에서 집중 개선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뜻한다. 여기에는 ‘산업현장 참여 프로젝트’, ‘6개월 이상 국제 교류 프로그램’, ‘고학년 대상 통합적 학습 활동’이 위치되었다.

한편, 연구대상의 집단적 특성에 따라 고효과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성별, 전공 계열, 학년을 막론하고 모든 집단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속 유지’해야 하는 프로그램으로는 학습 멘토링이나 전문가 튜터링,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이 급선무인 프로그램으로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한 프로그램으로는 교과 과정으로 개설된 지역사회 프로젝트, 마지막으로 현재 시점에서 인적·물적 재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집중적 개선 전략’이 요구되는 산업현장 프로그램과 장기 국제교류 프로그램으로 나타났다.

각 집단별로 개선 요구 전략은 다소 상이하였다. 먼저, 남학생과 여학생 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은 캡스톤, 포트폴리오 등 고학년 통합적 학습에 대한 시급한 개선을 요구하거나, 교수와의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왜 중요한지 뿐 아니라 학생 참여 활성화 전략도 함께 요구하였다. 그러나 여학생은 전반적으로 학습공동체 활동, 신입생 세미나, 멘토, 서포터즈 등과 같은 활동에 대해 해당 프로그램이 왜 자신들에게 필요한지를 안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인식하였다. 전공계열별 분석에서 특이한 점으로는 캡스톤 디자인, 포트폴리오 제작,

<표 9> 연구대상 집단 특성에 따른 고효과 프로그램 교육 요구도 조사 결과 정리

영역	결과	성별		전공계열				학년	
		남학생	여학생	인문예술	사회과학	디자인	공학	1,2학년	3,4학년
지속 유지	차이	HIP 8, 9	HIP5	HIP 8, 9	-	HIP5	HIP 5, 9	HIP9	HIP5
	공통	HIP10							
인식 개선	차이	HIP2	HIP 2, 8, 9	-	HIP 2, 8, 9	HIP 2, 8	HIP 2, 8	HIP 2, 8	HIP 2, 8
	공통	HIP7							
장기적 점진 개선	차이	HIP4	-	HIP 2, 4	HIP 4, 5	HIP 4, 9	HIP 4	HIP 4	HIP 2, 4
	공통	HIP6							
단기적 집중 개선	차이	HIP5	-	HIP5	-	-	-	HIP5	-
	공통	HIP1, HIP3							

※ HIP1: 산업현장 참여 프로그램 / HIP2: 학습 공동체 활동 / HIP3: 장기 국제교류 프로그램 / HIP4: 교수의 연구 프로젝트, HIP5: 고학년 대상 통합적 학습 / HIP6: 지역사회 프로젝트(교과) / HIP7: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비교과) / HIP8: 신입생 세미나(학점) / HIP9: 멘토나 튜터, 학교 서포터즈, 학생회 활동 / HIP10: 학습 멘토링, 선배 또는 전문가 튜터링 참여

졸업 작품전 등과 관련 있는 고학년 중심의 통합적 학습이 경성 학문 계열(공학)과 연성 학문 계열(인문, 사회) 간 교육 요구도 차이를 보인 것이다. 예를 들어, 공학 계열 학생은 고학년이 되면 캡스톤 디자인, 졸업 작품 설계 등에 자연스럽게 참여한다. 반면, 인문 계열 학생과 사회과학 계열 학생은 고학년이 되어도 관련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것이 선택적이다. 특히, 인문 계열 전공 학생들은 캡스톤 디자인 과목이나 자신의 대학 실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기술하는 포트폴리오 등에 대해 자신의 교육적 성장을 위해 필요하지만 참여하기 힘들다는 본 연구 결과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고학년 대상의 통합적 학습 활동이 우선적으로 인문예술 계열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고학년과 저학년 간 인식에서도 ‘고학년 대상 통합적 학습’에 대한 차이가 가장 두드러졌다. 1,2학년 학생들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하여 우선적인 정책적 처방을 요구하였다. 이는 저학년 학생들도 캡스톤 디자인, 포트폴리오 제작, 졸업 작품 등 졸업 학년이 되었을 때, 자신들의 최종 성과를 어떻게 정리하고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 요약을 토대로 H대학 맥락에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고효과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도와 참여도를 중심으로 살펴본 요구 조사 결과, 모든 집단에서 중요도와 참여도 모두 높아 ‘지속 유지’해야 하는 고효과 프로그램은 ‘학생 멘토링 혹은 선배 또는 전문가 튜터링 등에 참여하여 도움 받기’로 나타났다. 이는 H 대학이 전면 전공트랙제 도입으로 학생들의 전공선택 및 학업적응을 집중지원 하고 있는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대학들은 맞춤형 학습지원 체계 강화(김미화, 윤관식, 박지원, 2020), 단계별 진로상담 지도 체계 강화(조혜정, 백지숙, 2007)를 운영하며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의 지원에 진로·취업에 보다 초점을 맞춘 실제적 커리어 멘토 제도를 결합한 형태의 지원이 추가된다면 보다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 대부분의 집단에서 중요도는 낮지만

참여도가 높은 프로그램으로는 ‘신입생 세미나/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었다. 또한, 학생 전체적인 경향성을 살펴보면, ‘학습 공동체 활동’, ‘멘토나 튜터, 학교 서포터즈, 학생회 등 참여하여 도움 주기’도 여기에 해당한다. 신입생 세미나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대부분의 대학이 신입생의 입학 전/후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신입생에게 대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응을 유도하고 있다(민웅기, 2013). 그리고 서울대학교 서브라임 학습공동체(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홈페이지, 2021.09.15. 인출), 고려대학교 JUPT 학습공동체(고려대학교 교육개발원 홈페이지, 2021.09.15. 인출), 이화여자대학교 이화학습공동체(이화여자대학교 교육혁신센터, 2021.09.15. 인출) 등 개별 대학의 대표 학습 지원으로써 학습 공동체 활동을 지원해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과의 소통 채널을 개설하여 서포터즈, 학생회 등 학교 참여를 독려하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 다만,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학생 참여에 비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은 낮았다. 이는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들이 자신의 대학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나 성찰 없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 신입생 프로그램, 학습 공동체 활동, 튜터나 서포터즈 활동은 대학의 소속감을 제고하는 데 큰 역할을 하므로 해당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중심으로 학생 홍보전략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운영하면서 경험한 장점 강화를 중심으로 운영한다면 학생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중요도도 낮고 참여도도 낮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진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고효과 프로그램은 ‘교수의 연구 프로젝트 참여’, ‘지역사회 프로젝트’로 나타났다. H 대학은 2019년과 2020년 서비스-러닝 교과/비교과를 개발 및 도입하였는데, 본 연구의 조사 시점이 2019년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추론된다. 교수의 연구 프로젝트 또한, 2020년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필수화, 2021년 전공 교육과정 내에서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의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학에서의 교수의 연구 프로젝트는 학부생 연구프로그램(Undergraduate

Research Program; URP)의 형태로 교수와 개별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거나, 졸업논문을 작성하거나,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을 통한 연구를 진행하는 등의 교내 연구 형태로 이루어지거나,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과학창의재단 프로그램을 통한 교외 연구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한국과학창의재단, 2021). 교내 연구의 경우, 자신이 교수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교외 연구의 경우, 이공계열 중심의 프로그램 제공으로 프로젝트 경험 학생의 수가 적은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지역사회 프로젝트는 서비스 러닝(Service Learning)의 형태로 대부분의 대학이 대학의 주도적 운영 보다는 개별 교양 및 전공 교과목을 위주로 운영되어오고 있어 그 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것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듯 해당 영역은 이미 대학에서 지원하고 있음에도 참여 학생들이 자신의 참여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확한 오리엔테이션과 홍보를 통한 정보 전달이 필요한 영역이다.

집단 차이 분석을 중심으로 중요도는 높지만 참여도가 낮은 ‘전략적 집중’이 필요한 고효과 프로그램으로는 ‘산업 현장 참여 프로젝트’, ‘6개월 이상 국제 교류 프로그램’이 나타났다. 또한 남학생, 인문예술 계열 학생, 저학년 학생들에게 보다 ‘전략적 집중’이 필요한 프로그램은 대학생활을 통해 학습한 것들을 통합하고 실무에 적용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주요 내용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공교육을 통해 학습한 지식을 확장·통합하는 캡스톤디자인(Wagner, 1993)과 한양대-에리카 캠퍼스를 주축으로 한 산학연계형 문제해결학습, 즉 IC-PBL(Industry-Coupled Problem-Based Learning)(한양대학교 IC-PBL센터 홈페이지, 2021.09.15.)이 대표적이다. 고학년의 산학 프로젝트 및 통합적 학습 관련 프로그램의 참여를 필수로 제도화하는 움직임이 학생들의 참여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실무형 취업역량 강화와 산학협력 중심 교육체질 개선을 통한 전략적 집중이 필요하다. 또한, 시야 확대를 위한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는

데 반해 한정적인 자원과 인원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의 참여가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각 대학별로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와 지원 범위를 적정화하는 고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교육에서 고효과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학 차원에서 고효과 프로그램 운영 지침 제시가 필요하다. 단순 고효과 프로그램의 개념 및 유형만 제시할 것에서 더 나아가 운영자 측면에서 고효과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혹은 개선)하고 운영해야 하는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국내 대학들은 취업 교육프로그램,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학습공동체 프로그램(멘토링 등), 해외 봉사 프로그램, 국내 봉사 프로그램을 핵심으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각 대학의 인재상, 핵심역량과 비교과 교육과정의 적합성을 높이고 환류를 강조하는 비교과 교육과정 구축에 힘쓰고 있다. 비교과 교육과정 구축과 개선 시 핵심역량과 핵심 비교과 프로그램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국내 비교과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수행된 연구에서 소모임 형태의 학습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커리어개발, 취업지원 등 취업과 관련된 자기개발 프로그램, 대학생활 적응을 돕는 멘토링 프로그램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났다. 또한, 비교과 교육과정이 대학생들의 자존감, 학업성취, 정서적 건강 등에도 영향을 미침으로 학생들의 대학생활과 학습적인 측면에 대한 효과와 함께 심리·정서적인 측면의 효과 또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효과 프로그램은 대학이 학생의 성장과 발달 과정에 대해, 학생이 대학에서 어떤 일상을 보내는지에 대해, 학생이 수업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그 결과 어떤 능력들이 계발되는지에 대해, 마지막으로 학생이 대학의 수업과 행정지원, 교육지원 서비스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가지게

도움을 준다. 학생의 생활과 인식, 역량 등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대학의 교수와 직원들의 일상적인 업무 내용이나 업무 처리 방식에서의 변화를 가져오고, 궁극적으로 학생을 가장 중요한 구성원으로 보고 자신의 임무는 이 학생들을 돕고 지원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새로운 조직 문화를 확산시키는 관점에서의 고효과 프로그램의 운영·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생들의 고효과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도와 참여도를 중심으로 학부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실제적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교육투자의 효율성의 관점에서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의 개편의 우선순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소재 한 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전국의 대학으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대학 사례를 포함하여 후속연구를 진행한다면 보다 일반화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는 학부교육실태조사(K-NSSE)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효과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후속연구에서 대학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구성원(교원, 학생, 행정가 등)들의 ‘고효과’에 대한 개념적 정의에 대해서 점검한다면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대학교육의 ‘고효과’를 고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는 대학의 사례 검토를 통한 시사점 도출을 목표로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인 H대학은 2017년 국내 최초 트랙제를 도입한 대학으로 전공교육과정 운영의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교육과정 도입 후 4년이 지난 2021년 재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다면 H대학 맥락을 포함한 분석과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재학생 전체를 연구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고효과 프로그램의 유형별 학습 효과 측면에서의 주기적인 분석과 개별 요인간의 연계성, 졸업 후 진로 적응 차원의 시사점 등을 분석하여 보다 학습자 지향적인 운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고려대학교 교육개발원 홈페이지 (2021). KUPT(Korea University Peer Tutoring) 학습공동체란?. https://ctl.korea.ac.kr/front/content/view.do?content_seq=14에서 2021년 9월 15일 인출.
- 교육부 (2019).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 보도자료(2019.08.14.).
- 구성우, 김병주 (2018). 대학기관변인이 ACE사업에 따라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 **교육행정학연구**, 36(5), 1-25.
- 김미화, 윤관식, 박지원 (2020). K 대학의 역량기반 맞춤형 학습 지원을 위한 탐색적 연구. **실천공학교육논문지**, 12(1), 49-60.
- 민웅기 (2013). 대학적응을 위한 신입생 선행 교육 프로그램 사례분석: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차별화, 감성, 참여’개념에 입각한 새내기 프로그램 운영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7(6), 275-304.
- 배상훈, 강민수, 홍지인 (2015). 한국 대학생의 학습참여 진단을 위한 미국 NSSE 모델 도입 및 타당화. **아시아교육연구**, 16(4), 77-104.
- 배상훈, 김성열, 강민수, 곽은주, 김소영, 박인심, ... 한송이 (2019a). **2019년 학부교육 실태조사(K-NSSE)**. 서울: 교육과미래연구소.
- 배상훈, 박선화, 곽은주, 조은원, 한송이, 조성범 (2019b). 캠퍼스 학습 환경 진단도구(University Learning Environment Evaluation Scale) 개발 및 타당성 검증. **교육행정학연구**, 37(5), 209-238.
- 배상훈, 한송이, 전수빈 (2019).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 (ACE+) 백서: 잘 가르치는 대학 사업 8년의 성과와 과제**. 학부교육선도대학협의회.
- 배상훈, 황수정 (2021).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학습참여 및 대학 몰입과 예측요인: 잠재프로파일 분석. **교육학연구**, 59(1), 279-308.
- 변수연 (2019). 고효과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자기보고식 학습 성과에 끼치는 영향력 탐색. **한국교육학연구**, 25(2), 117-141.
-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홈페이지 (2021). 서브라임 학습공동체. <https://ctl.snu.ac.kr/ko/learning/sublime/20>에서 2021년 9월 15일 인출.
- 송영명, 유신복 (2020). 대학생의 고효과 프로그램 참여도와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대학몰입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6), 885-905.
- 유정아 (2015). 대학보직교원의 역량탐색: 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를 활용하여. **열린교육연구**, 23(3), 359-377.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혁신센터 (2021). 이화학습공동체. http://itl.ewha.ac.kr/?page_id=579에서 2021년 9월 15일 인출.
- 조혜정, 백지숙 (2007). 대학생을 위한 단계별 진로지도 프로그램 (Three K 프로그램) 이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와

- 대학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5(2), 87-97.
- 한국과학창의재단 (2021). **2021년도 학부생 연구프로그램 (URP) 지원 연구 과제 공고**. 서울: 한국과학창의재단.
- 한양대학교 IC-PBL센터 홈페이지 (2021). IC-PBL. <http://pb1.hanyang.ac.kr/?act=info.page&pcode=information>에 서 2021년 9월 15일 인출.
- 홍지인 (2017). 대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고효과 프로그램 참여가 학습 성과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Astin, A. W., & Antonio, A. L. (2012). *Assessment for excellence: The philosophy and practice of assessment and evaluation in higher education* (2nd ed.). Plymouth, UK: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 Cruce, T. M., Wolniak, G. C., Seifert, T. A., & Pascarella, E. T. (2006). Impacts of good practices on cognitive development, learning orientations, and graduate degree plans during the first year of college.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7(4), 365-383.
- Keeling, R. P. (2006). Integrating learning reconsidered in strategic planning. *Learning Reconsidered*, 2, 53-58.
- Kinzie, J. (2012). Introduction: A new vision of student success. In L. A. Schreiner, M. C. Louis, & D. D. Nelson (Eds.). *Thriving in transitions: A research-based approach to college student success* (pp. 1-18). Columbia, SC: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National Resource Center for the First-Year Experience and Students in Transition.
- Kinzie, J., Magolda, P., Kezar, A., Kuh, G., Hinkle, S., & Whitt, E. (2007). Methodological challenges in multi-investigator multi-institutional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Higher Education*, 54, 469-482.
- Kuh, G. D. (2008). *High-impact educational practices: What they are, who has access to them, and why they matter*. Washington, DC: Association of American Colleges and Universities.
- Kuh, G. D., Kinzie, J., Schuh, J. H., & Whitt, E. J. Associates (2005). *Student Success in College: Creating Conditions That Matter*.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Martilla, J. A., & James, J. C. (1977).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Journal of Marketing*, 41(1), 77-79.
- National Survey of Student Engagement (2007). *A Fresh Look at Student Engagement (NSSE ANNUAL RESULTS 2013)*. IN: Indiana University, Center for Postsecondary Research.
- Nelson Laird, T. N., BrckaLorenz, A., Zilvinskis, J., & Lambert, A. (2014). *Exploring the effects of a HIP culture on campus: Measu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mportance faculty place on high-impact practices and student participation in those practices*. Roundtable Paper presented at the,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Higher Education, Washington, DC.
- Pascarella, E. T., Cruce, T. M., Wolniak, G. C., & Blaich, C. F. (2004). Do liberal arts colleges really foster good practices in undergraduate education?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5(1), 57-74.
- Strange, C. C., & Banning, J. H. (2015). *Designing for Learning: Creating Campus Environments for Student Success*.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Wagenaar, T. C. (1993). The Capstone course. *Teaching Sociology*, 21(3), 209-214.
- Zhao, C., & Kuh, G. D. (2004). ADDING VALUE: Learning Eommunities and Student Engagement.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45(2), 115-138.

ABSTRACT

A Demand Analysis of Students on High-Impact Practices in University using IPA: A Case of H University in Seoul

Myung-Hee Jang¹, Sungbum Cho², So-Mi Jeong³

¹Professor, Hansung University, ²Assistant Professor, Semyung University, ³Assistant Professor, Dongyang University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fferences in student perceptions between the importance and participation of high-impact practices(HIPs) of university.

Methods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on 1,326 students of H University in Seoul, and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of importance and participation in each HIPs was analyzed for the students. The list of HIPs of K-NSSE was used. The difference between importance and participation for each HIPs was examined through t-test.

Result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student's perception on participation was low compared to importanc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all HIPs. The analysis results are priorities for student's demand of HIPs through IPA as follows; 1) programs that need to be 'continued' : 'mentoring and tutoring', 2) programs that require 'improvement of awareness': 'Learning Community', 'Freshman Orientation', 'First-Year Seminars', and 'Mentor, Tutor, Supporters, Student Council Activities', 3) Programs that require 'gradual improvement' from a long-term perspective : 'undergraduate research program', 'Service Learning', and 4) programs that required 'intensive improvement' at this time: 'Internships', 'Study Abroad Program', and 'Capstone Courses and Projects'. the perception of students on HIPs differs by gender, major, and grade of the students.

Conclusions This study suggested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developing HIPs in university.

Key words High-Impact Practices, Demand Analysis of Students,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Case Study